

마약 밀수에 심야 도심 패싸움까지 끊임없는 외국인범죄 지역민 '불안'

광주 구시청사거리서 10여명 난투극 러시아인·우즈벡출신 고려인 섞여 싸움 말리던 미국인 폭행 피해도 3년간 광주 728건·전남 2301건 불법체류도 늘어 치안대책 시급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심야에 외국인들끼리 집단으로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구시청사거리에 있는 한 주점 앞에서 지난달 30일 새벽 4시께 외국인 10여명이 뒤섞여 몸싸움을 벌였다. 광주경찰청은 이 사안을 국제범죄로 취급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목격자 증언에 따라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구시청사거리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시비가 붙어 단체로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미국인이 싸움을 말리려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 사람들은 한때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10여명 이상의 외국인들 중 8명 가량이 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는 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주·전남에서 외국인이 벌이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패싸움'을 벌이는 가하면 외국인 마약 밀수입 사례가 급증하는 등 외국인 범죄를 막는 경찰력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광주에서는 총 728건, 전남에서는 2301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2019년 252명, 2020년 282명, 2021년 194명의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됐으며 올해도 10월까지 16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전남에서는 2019년 726명, 2020년 808명, 2021년



러시아 등 국적의 외국인 10여명이 지난달 30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구시청사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이 장면은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촬영돼 온라인 상에 퍼지고 있다.

(SNS 게시물 캡처)

767명이 검거됐으며 올해는 10월까지 706명이 체포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광주에서는 2019년 51건, 2020년 54건, 2021년 57건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2019년 145건, 2020년 166건, 2021년 160건의 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산업단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간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자국으로 복귀했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마약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경찰도 치안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마약 밀수 등의 지능적인 범죄가 증가세다. 광주에서는 2019년 72건이던 마약 범죄가 2020년 10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만 벌써 46건을 넘어섰다. 전남에서는 2019년 12건→2020년 29건→2021년 61건 등 급증세며, 올해도 10월까지 39건의 외국인 마약 사범이 붙잡혔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P씨(25세) 등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3-9월 합성대마를 식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뒤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P씨 등이 밀수입한 합성대마는 12.6kg(5억1000만원 상당)으로, 이들은 국내 반입과정에서 30개가 넘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불법체류수범도 진화하고 있어 문제다. 과거처럼 횡간 등을 통한 불법체류 외에도 출입국사무소 신고 의무가 없는 '결혼이민' 목적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보란 듯 머무르면서 취업하는 불법체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하점이 생기는 만큼 범죄·사고 발생 시 대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인지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20만 8971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20년 39만 2196명으로 급증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외국인 수가 줄어 경각심이 낮아졌던 만큼 최근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더욱 부각돼 보인다"며 "외국인범죄 감소로 한동안 다른 영역으로 분산됐던 치안 인력을 재편성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 인사이트

가상화폐 투자대행업 속여 7억 가로챈 부부 '둘러막기' 하며 투자자들 속여...광주지법, 징역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7억 여원을 편취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A(50)씨와 B(여·47)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부부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5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억2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사무실을 내고 건물 외벽에 'bitcoin'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세계가 주목하는 광주 비트코인',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광주 비트코인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등의 광고성 글을 올려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인 A씨를 보조하며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가상화폐 관련 계정으로 돌리는 일명 '둘러막기'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 것처럼 속였다.

A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거나 원금 이상의 반환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고 이들의 부탁을 받아 계정을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해 주는 대행업무를 해줬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유사수신행업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수익구조상 가상화폐 투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지도 있었고 보고 유사수신행위 방조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B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람잡은 만취 운전...광주서 잇단 참변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중인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선에 있던 4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부업으로 하던 대리운전 임금을 찾아 외발전 동행을 타고 이동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C(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C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하다 오토바이와 9.5t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서 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C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완도 섬지역 야산서 불...사흘째 진화작업

완도의 섬지역 야산에서 불이나 사흘째 진화작업이 진행됐다. 접근이 어려운 야산 절벽에서 불씨가 되살아 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발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완도 금입읍 야산 절벽 구간에서 불씨가 되살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헬기 4대와 진화대원을 동원해 1시간 30여 분만에 큰불을 잡았지만, 진화 인력이나 진화 장비가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 구간에 불씨가 남아 완전히 진화하는데 4시간이 더 걸렸

다. 이 불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다.

이 야산은 지난 6일 오후 3시 13분께 처음 불이나 2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가 다음날 절벽에 남아있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재차 5시간여의 진화작업이 진행됐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절벽 밑에 겹겹이 쌓인 낙엽이 가뭄으로 바짝 마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진화인력이 직접 불씨를 확인하기 어려워 남아있는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아파트 외벽 오르다...해남서 외국인 추락사

불법체류 러시아 국적 30대

아파트 외벽을 기어 오르는 30대 외국인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께 해남군 해남읍의 한 아파트에서 러시아 국적 A

(33)씨가 아파트 외벽을 오르다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A씨가 아파트 외벽을 오르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추락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목격자는 "A씨가 아파트 철제난간 등을 잡고 7

층까지 올라가 바깥 실외기에 앉았다가, 스스로 떨어진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7층 바깥에서 창문을 뜯거나 침입하려던 흔적은 없다는 점을 들어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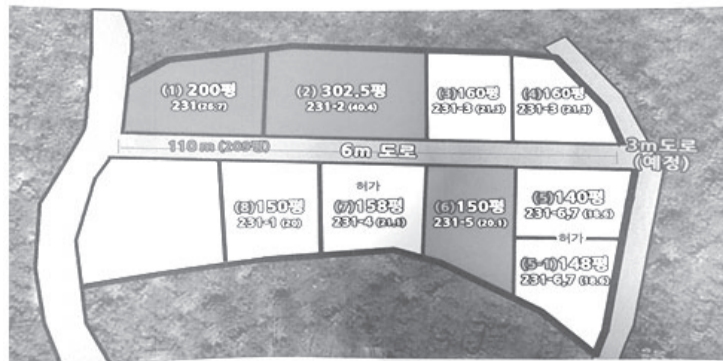
장성토지 매매 (분양)

경매교육 [기초반]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3억4천
	광산구 수완동 (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7백
	서구 매월동 (임야) ▶ 감정가 6억2,700 → 최저가 2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2천
	서구 매월동 (빌라)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남구 봉선동 (아파트23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6670-9800

010-2614-9801